

# 드론산업 육성방안 수립 위한 협업 모색

### 전주시·캠텍종합기술원, 항공·모빌리티 분야 전문가들과 'K-드론 선도도시 포럼' 개최

전주시가 K-드론 선도도시 육성방안을 찾기 위해 연 전문가 포럼에서 수소·탄소 인프라를 활용한 공중 e-모빌리티 선도, 도심항공교통 발전전략 수립 등 전주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전주시와 캠텍종합기술원은 5일 전주혁신창업허브 첨단누리홀에서 항공 및 모빌리티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K-드론 선도도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국가정책과 연계한 드론산업 육성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과정에서 국내 유수기업 및 기관과 협업할 수 있는 과제를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이동체사업단 강왕구 단장과 차투원모빌리티연구소 차투원 소장이 발제에 나서 각각 '공중 e-모빌리티 발전 전략 및 대응 방안'과 'UAM(도심항공교통) 주요 개발업체 및 에코시스템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왕구 단장은 "공중 e-모빌리티는 ▲지능화 ▲초소형화 ▲중급 군사용 확산 ▲인공지능 기반 무인공격기 운용 ▲UAM 부상 등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전주시가 공중 e-모빌리티를 선도하려면 현재 보유한 수소·탄소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차투원 소장은 "강원도, 인천 등 다양한 지자체에서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비행체 부품 개발 등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심항공교통 대중화를 위해 자율비행, 야간운항, 이착륙장 건설, 기체양산체계 구축 등을 과제로 삼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덕진 전북대학교 기계설계공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도 진행됐다.



전주시와 캠텍종합기술원은 5일 전주혁신창업허브 첨단누리홀에서 항공 및 모빌리티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K-드론 선도도시 포럼'을 개최했다.

토론에는 이길행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센터장, 김홍대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 전문위원, 송정민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스탭팀장 등이 참여했다.

이길행 센터장은 "과거부터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과 드론의 융합기술 개발을 통해 ▲실종자 수색 및 순찰 ▲국지 흡수 및 수질오염 감시 ▲인공지능 정밀방제 및 생육관리 ▲고층 구조물 관리 등 다양한 드론 활용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다"며 "항공 전주시에서는 도심항공교통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상설 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홍대 전문위원은 "전주시가 한국 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추진 중인 전주 디지털트윈사업의 산출물을 도심지역

드론 최적 비행경로 생성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정민 팀장은 "과거에는 취미용 드론이 시장의 대부분이었다면 현재는 산업용 드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물류, 촬영 영상관제, 진단 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며 "특히 물류 운송 니즈가 커지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효율의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등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시는 다음 달 'K-드론 선도도시 2차 포럼'을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들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정부의 K-드론 육성 정책에 발맞춰 지난날 ▲전북대학교 ▲세종대학교 ▲전주대학교 ▲한국전

기술연구원 ▲전자기술연구원 ▲전북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주)대한항공 ▲(유)비아 ▲(주)테라리스 ▲(주)우리아이오 ▲DN특허법률사무소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IT팀을 꾸렸다. IT팀은 다음 달까지 전문가 자문회의를 추진해 K-드론 선도도시 전주시 육성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김봉정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은 "국내 내로라하는 기관·전문가들이 전주시의 드론산업 발전 방향 정립을 위해 이렇게 함께 참여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포럼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드론 선도도시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 비빔면' 채식주의자도 즐긴다

### 전주 비빔면 소스 '비건 제품인증' 획득

전주시가 아쉽게 선보인 '전주 비빔면'이 채식주의자도 즐길 수 있는 '비건(Vegan) 비빔면'이 됐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원장 오병준)은 지역 농협회사법인인 (주)천년누리(대표 장운영)의 '전주 비빔면' 소스가 최근 한국비건인증원의 비건 제품인증(인증번호:F164-01)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비건 인증은 동물로부터 유래한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에만 주어진다. 한국비건인증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고 비건 인증·보증을 담당하는 정식 기관으로 해외 비건 인증보다 절차가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주 비빔면' 소스는 느끼하지 않고 깔끔하게 만드는 데 공을 들였다고 업체 측은 홍보하고 있다.

최근 비건 식품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비건 인증이 천년누리의 '전주 비빔면'이 시장에서 판매 중인 비빔면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지난날 12일 출시된



'전주 비빔면'은 천년누리 전주시 청정과 전주한옥마을점, 전주역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코레일유통 호남본부와 스토리웨이 입점이 추진 중이다. 이 제품은 현재 네이비 해피빈을 통해 판당이 진행 중이며, 출시 2주 만에 2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기록했다. 판당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오병준 원장은 "최근 동물 복지, 환경문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비건 푸드 트렌드의 시대적 흐름에 맞춰 비건 인증을 획득해 지역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채식 범주의 식물성 대체 식품 연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인후·반촌 도시재생 박차

### 전주시, 거점시설 부지 매입·LH와 관련 협약 체결

전주 인후·반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거점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 관련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에 들어섰다.

전주시는 전북도와 인후동, 서소송동 등 3개 동에 걸쳐 추진되는 인후·반촌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인후·반촌 지역은 전체 471동의 건축물 중 노후 불량 건축물이 93%를 넘어서는 등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4년까지 국비 100억 원과 공기업(LH) 109억 원을 포함한 총 3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정주환경 개선에 나선다.

시는 작은도서관, 마을 레스토랑, 문화카페 등이 들어서는 어울림플랫폼과 집수리지원단, 마을공작소 등으로 구성될 주거복지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연면적 1170㎡ 규모의 부지를 매입한 상태로, 시설 신축을 위한 공동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관련 협약도 체결했다. 시는 또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지원센터를 이날 말 개소할 예정으로, 리모델링 공사와 근무인력 선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에는 단위사업별 실시계획영역을 추진하는 등 재생사업을 본격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서로의 우산이 되는 지우산 마을'을 비전으로 정한 인후·반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편안한 마을 만들기 ▲사람의 마을 만들기 ▲우리의 마을 만들기 등을 목표로, 살기 좋은 마을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주요 사업에는 ▲지우산 어울림플랫폼 조성 ▲행복주택 63호 등 주거복지 통합지원 플랫폼 조성 ▲지역자력형 집수리 지원 ▲겉고 싶은 길 조성 ▲안심골목 정원과 사업 ▲세대융합 창업공간 조성 ▲소규모 공원 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이 포함됐다. /김윤상 기자

##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직원 역량 강화 총력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는 조직의 비전인 '건강한 시민, 지속가능한 농업, 독립경제도시 전주' 실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고 상호존중하고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함이다.

센터는 우선 신규 직원들을 대상으로 푸드플랜 등 재단 비전, 실무기초, 현장 체험 등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

을 제공해 빠른 적응을 돕기로 했다. 또 직무와 관련된 자격 취득에 소요되는 경비를 전액 지원하고, 사이버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여건도 제공기로 했다. 여기에 인사회계실무, CS, 감정노동자보호, 노무상식, 인권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하고 감정피해 및 안전에 대한 인식 교육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창의력을 높이고 조직화합을 도울 사내 동아리 운영 활성화에도 주력기로 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설공단, 제6대 이사장 공개 모집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조병우)이 제6대 이사장을 공개 모집한다. 지원자는 공단 경영지원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지원서와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등의 지원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접수 기간은 6일부터 20일까지 15일이다.

지방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어야 하며, 지방공기업법 제60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김윤상 기자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 전반에 책임을 진다. 대내·외 관계 관련 업무, 기관의 사업수행업무, 조직 내부관리 업무, 변화와 혁신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사장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다.

기타 자세한 문은 전주시설공단 경영지원부(063-239-2511)로 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b>모 집</b>	<b>전주교육대학교·우석대·원광대 군산대·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b>	<b>상 담</b>
<b>스피치 · 긴장해소 · 면접 · 웃음코칭</b>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저렴한 등록금,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p>▷ 전담교수 주요경력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li> <li>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li> <li>스피치자격시험 감정위원</li> <li>한국스피치,올림픽회 전북회장</li> <li>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li> <li>KBS TV 아침마당, MBC TV, JTV, TBN 출연 및 강의자</li> <li>스피치 칼럼리스트 · 평생교육사</li> <li>심리상담사 · 사회복지사</li> <li>전주매일 부사장</li> </ul>	
<b>&lt; 각 지역별 모집 &gt; &lt; 누구나 학습가능함 &gt;</b>		
<b>학교별</b>	<b>주요과정</b>	<b>지역별(자유선택)</b>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긴장해소(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익산, 논산, 강경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퍼러더업,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군산, 서원, 부안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고급,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b>상담전화 :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야)</b> <b>※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b>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http://www.jmaeil.com)